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지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함께 일군 첫 결실... 군산형 일자리 1호차 출고

명신 군산공장서 '다니고VAN' 생산 기념식
1~3호차 지역사회 기증·차량 시승 진행
도·군산시, 참여기업 안착 초점 사업 지원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으로 추진동력을 얻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첫 전기차 생산 출고식을 진행하며, 전북 전기차산업의 순항을 위한 큰 첫걸음을 내디뎠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생산 1~3호차를 지역사회에 기증하며, 대기업을 사각진 자리에서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일궈낸 지역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북도는 24일 (주)명신 군산공장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생산 1호차인 '다니고 VAN'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고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임준 군산시장, 참여기업 대표, 지역 도의원, 안대 노충 지역위원장, 상생협의회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전북산 첫 전기차 생산을 축하했다. 특히,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

장,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등 관련 중앙부처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기쁨을 같이했다. 공식 행사에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그간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발굴과 추진에 노력한 노·사·민 관계자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출고식은 (주)명신 이태규 대표의 환영사, 송하진 도지사 등 주요 내·외빈의 축사, 출고를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 1~3호차 지역사회 기증식, 차량 시승 상생형 지역일자리 인증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참여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산·고용에 들어감에 따라, 참여기업의 지역 조기인착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에 돌입하면서 창출되는 500여 명의



송하진 전북도지사(2)와 이태규 (주)명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4일 전북 군산시 (주)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1호차 생산 기념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신규 채용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들의 사업 초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7월부터 전북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400억원)을 지원한다. '임금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중재 특별위원회' 등의 체계를 갖추고 선

진형 임금체계를 구축해 오는 11월에 공동교섭을 추진해 핵심 상생협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원·하청간 복지 격차를 해소할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해 사전 제안 사항을 이행하고, 전기차 관련 국가공모사업과 R&D사업을 지속

적으로 발굴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오늘 1호차 생산은 중소·중견기업이라는 한계와 난관을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이겨낸 성과물로서 전북 전기차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알리는 신호탄이

다"면서 첫 전기차 생산을 축하했다. 송 지사는 또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플러스터 조성으로 산업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선정 이후 상생협약 이행과 함께 기술 개발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사업의 조기 정착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다니고 VAN을 필두로 초소형 전기차에서부터 전기 SUV, 전기 트럭, 전기 버스 등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다양한 생산 라인인 이 군산은 물론, 전북도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면서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진원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사민정이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창모터스와 명신의 생산활동 협업사업의 결과물로 탄생한 '다니고 VAN'은 이날 1호차 출고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생산된다. 지난해 10월 두 회사는 3년간 총 1만 3,000대를 생산하기로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국제네트워크 가동 농촌인력 부족 해소

도, 고창군에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지방정부 국제교류로는 첫 사례

전북도가 해외 교류활동으로 맺어온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인입하기로 했다. 도는 송하진 도지사, 베트남 까마우성 레권 인민위원장 이 화상으로 만나 올 하반기부터 계절근로자들을 전북도에 인입하기로 최종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전북도지사, 까마우성 인민위원장의 인회하에 계절근로자 수용측인 유기상 고창군수와 송출측인 까마우성 전면공 전반하이군수가 계절근로자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전북도 고창군은 베트남 까마우성 전면하이군으로부터 하반기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인원은 농가수요에 따라 양측 합의 하에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국제교류를 통해 도내 농촌인력 부족 현상과 외국의 젊은 농촌인력 송출수요를 찾아 양국과 양 지방정부 간의 상생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우호교류의 실질적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가 구축해온 국제 네트워크를 시·군이 활용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교류방안을 찾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전북도·시·군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은 자치단체간 국제교류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을 성공시킨 사례로는 까마우성이 처음이며 특히, 코로나로 국경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또한, 도 국제교류부서와 농업부



서, 해당 시·군이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둔 점에서도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전북도와 까마우성은 지난 2019년 5월 3일 우호관계를 맺고 상호 교류를 통해 우의와 신뢰를 강화해왔다. 비록 우호협약을 체결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고 상호왕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방역물품을 주고 받으면서 양측이 우정과 신뢰를 쌓아왔던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협의과정에서 민감한 부분이 많고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설득, 그리고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이 있었기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는 고창군의 계절근로자 도입요청을 인지한 즉시 바로 까마우성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해당사자인 고창군과 까마우성이 세부사항에 대해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도-고창군-까마우성 3자간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와 수정작업이 여러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까마우성과의 내용 전달, 협의, 설득 등을 수시로 진행했고, 상호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 협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까마우성과 이번 교류성과로 양 지역 관계가 한 걸음 더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고 향후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 지방정부 교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올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수행기관 선정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도가 도내 1,75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원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수행기관으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공모 기간을 거쳐 사회적경제 관련 운용실적을 보유하고, 도 기금과 매칭(5:1)할 자체 조성기금을 확보한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아 이날 서류심사와 대면 평가를 통해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로 최종 선정했다. 전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60억원 조성을 목표로 올해 5억원의 사회적경제기금이 조성됐다. 조성된 기금은 물적 담보제공이 어려워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저금리·무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기금운용 규모는 5억4,000만원(도 4억5,000만, 자조 기금 9,000만) 규

모로 기업당 최대 1억원, 3% 이내 저금리로 최대 60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번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도내 사회적경제 분야 40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민간연계 조직이다. 기금 융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생태 파악이 용이하고, 현장과 밀착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자조기금을 확보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기재부 설립 허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기관으로, 풍부한 기금운용 경험을 살려 도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기업의 성장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도는 오는 7월 기금운용 협약체결 이후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한 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